

주요개념 : 모유수유모, 모유수유 건강행위

##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최소영\* · 양영옥\*\* · 권인수\*\*\* · 강영실\*\*\*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80년대 48.1%, 90년대 14.1%, 2000년대 10.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Kim, 2003), 이러한 국내의 모유수유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5년부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였다(Kwon, Choi, Kang, & Yang, 200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모유수유율은 2003년 16.5%(KNSO, 2003), 2006년 24.2%로 약간 상승하였다(Kim, Cho, Kim, Do, & Lee, 2006). 그러나 미국소아과 학회에서는 최소한 생후 4-6개월까지는 전적으로 모유만을 먹이고, 1년 이상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반면(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8),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의 평균기간이 3.03개월로 보고되었다(Kim, Cho, Lee, Kim, & Song, 2000). 따라서 모유수유 실천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연구에서 모유수유율 및 지속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의료기관의 모아 분리 운영체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취업여성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모유수유모에게서 나타나는 유방 및 유두문제, 유즙부족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 수유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의 산모측 요인을 들고 있다(Lee, Chung, Ahn, Mun, & Park, 2003; Moon et al., 1998). 더구나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뀐에 따라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습득 기회나 모유수유를 관찰할 기회가 없어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지도해 줄 지지 기반이 없어 더 많은 어려움을 지니게 되었다(Yeo & Hong, 2003).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유수유를 실천해야 할 경우 수유에 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모유수유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포기하기가 쉽다. 선행연구를 보면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신저자 양영옥 : infantlover@kaya.ac.kr

모유수유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태도가 긍정적인일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았다(Byun, Han, & Lee, 1994; Kang, 1999; Choi, 2002; Lee, 2003; Chezem, Freiesen, & Boettcher, 2003). 그러므로 최근에는 모유를 시도하려는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정보 제공, 모유수유모의 자신감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지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Chen, 1995; Lee & Suh, 1996; Jeong, 1997; Kim, Hyun, Kang, 2002; Kwon et al., 2008).

이와 더불어 모유수유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Park, Lee, Jang, & June, 2001). 이는 모유수유를 시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은 모유수유모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Jeong(1997)과 Park 등(2001)이 모유수유방법 및 모유량 증가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모유수유방법과 모유수유 증가 행위를 모유수유 건강행위라고 규명하였으나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소아과학회에서 전적으로 모유를 권장하는 6개월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모유수유 실천을 도모하고 향후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5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모유수유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모유수유모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파악한다.
- 2) 모유수유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건강행위 차이를 분석한다.

## 3. 용어 정의

### 1) 모유수유 건강행위

바람직한 모유수유를 실행하기 위해 어머니가 해야 할 모유수유 행위와 질적으로 우수한 모유의 생산 분비를 위하여 어머니가 취해야 할 행위를 말하며(Park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Park 등(2001)에 의해 개발된 모유수유 건강행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5-7개월 영아를 모유로 양육하고 있는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2007년 경상남도 간호사회가 주최하는 제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영아의 어머니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대회 참가 대상자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추천에

의한 건강한 영아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선발 대회에 참가하는 시점까지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건강한 어머니이다.

### 3. 연구 도구

#### 1) 모유수유 건강행위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Park 등 (2001)에 의해 개발된 모유수유 건강행위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24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전달이 어렵거나 중복이 되는 4문항을 제외한 20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5점 Likert 척도는 '전혀 안 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65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당일인 2007년 9월 11일에 이루어졌다. 대회에 접수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내용이 모유수유아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연구보조원은 G 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과 학부 3학년 학생으로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 중 미숙아나 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난 영아 및 심장질환 등의 질병이 있었던 자료는 질환으로 인하여 모유수유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모유수유 건강행위의 문항별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평균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건강행위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이었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만형태는 자연 분만이 77.2%로 제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feeding mothers (N=123)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Type of delivery            | Vaginal delivery   | 95  | 77.2 |
|                             | C-section delivery | 28  | 22.8 |
| Baby age                    | 5months            | 41  | 33.3 |
|                             | 6months            | 40  | 32.5 |
|                             | 7months            | 42  | 34.1 |
| Birth order                 | First              | 82  | 66.7 |
|                             | Second             | 36  | 29.3 |
|                             | Third or over      | 5   | 4.1  |
| Frequency of breast feeding | Less than 6 times  | 18  | 14.6 |
|                             | 6-7times           | 54  | 43.9 |
|                             | 8-9times           | 24  | 19.5 |
|                             | More than 10 times | 27  | 22.0 |
| Breast milk quantity        | Enough             | 114 | 92.6 |
|                             | Insufficient       | 9   | 7.4  |
| Knowledge of breastfeeding  | Enough             | 96  | 78.1 |
|                             | A little short     | 27  | 21.9 |

절개 22.8%보다 많았으며, 아기의 월령은 5, 6, 7개월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66.7%로 과반수이상이었다. 모유수유 횟수는 1일 6회-7회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량은 충분한 경우가 92.6%로 많았다. 모유수유 지식은 '충분하다'로 답한 대상자가 78.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부족하다'가 21.9%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모유수유 건강행위

모유수유 건강행위 중 '항상 한다', '거의 한다'를 '실천한다'로 분류하였으며, '거의 안한다', '전혀 안한다'를 '실천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였는데, 모유수유 건강행위의 각 문항별 실천 정도는

<Table 2>와 같았다.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모유수유시 '아기의 몸이 전적으로 엄마와 맞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껴안고 먹인다'는 문항으로 '실천한다'가 92.7%이었다. 다음으로 '젓 먹이기 전에 항상 손과 젓꼭지를 씻는다'가 80.5%이었다. 그에 비해 '아기가 먹다가 남은 젖은 짜낸다'가 8.1%로 실천 정도가 매우 낮았다. 반면에 우수한 모유의 생산 분비와 관련된 '흡연(97.6%)', '음주(93.5%)', '의사나 약사의 허락없는 복약(95.1%)' 등은 '실천하지 않는다'가 더 높았으며,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86.2%)', '물을 많이 마신다(85.4%)'는 '실천한다'가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 건강행위의 평균 점수는 3.73점이었다.

<Table 2>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

(N=123)

| Items                                                                            | Desirable behavior | Neutral behavior | Undesirable behavior | M±SD      |
|----------------------------------------------------------------------------------|--------------------|------------------|----------------------|-----------|
|                                                                                  | n(%)               | n(%)             | n(%)                 |           |
| 1. Wash always your hands and nipples before breastfeeding                       | 1( 0.8)            | 21(17.1)         | 99(80.5)             | 3.96± .60 |
| 2. Massage your breasts before breastfeeding                                     | 18(14.6)           | 51(41.5)         | 52(42.3)             | 3.40± .91 |
| 3. Feed on the lay-side position while awakening at mid night                    | 25(20.3)           | 17(13.8)         | 79(64.2)             | 3.61±1.30 |
| 4. Feed by holding the baby very close position between mother and baby          | 1( 0.8)            | 5( 4.1)          | 114(92.7)            | 4.38± .61 |
| 5. When lactating feeds in silent and quiet place                                | 5( 4.1)            | 18(14.6)         | 98(79.7)             | 4.03±.76  |
| 6. When sucking nipples press upper part of breast with the hands                | 20(16.3)           | 42(34.1)         | 58(47.2)             | 3.52±1.09 |
| 7. When just one time lactating use both breasts as possible                     | 28(22.8)           | 26(21.1)         | 67(54.5)             | 3.49±1.21 |
| 8. When finishing lactation take out the nipples then clean and dry with a towel | 22(17.9)           | 38(30.9)         | 61(49.6)             | 3.47±1.01 |
| 9. When next feeding period sucking the comfort breast first                     | 49(39.8)           | 29(23.6)         | 43(35.0)             | 2.94±1.22 |
| 10. Keep feeding time regular                                                    | 37(30.1)           | 35(28.5)         | 49(39.8)             | 3.11±1.11 |
| 11. First feeding time is about 40 minutes                                       | 71(57.7)           | 29(23.6)         | 20(16.2)             | 2.32±1.06 |
| 12. Remaning breastmilk must be removed completely                               | 88(71.6)           | 23(18.7)         | 10( 8.1)             | 2.07± .93 |
| 13. Smoking                                                                      | 120(97.6)          | -                | 1( 0.8)              | 1.02± .27 |
| 14. Drinking coffee                                                              | 65(52.8)           | 50(40.7)         | 6( 0.9)              | 2.17± .97 |
| 15. Drinking alcohol                                                             | 213(93.5)          | 5( 4.1)          | 1( 0.8)              | 1.25± .57 |
| 16. Take medicine without the doctors or pharmacists permits.                    | 117(95.1)          | 5( 4.1)          | 1( 0.8)              | 1.05± .34 |
| 17. Drinking much water                                                          | 6( 4.9)            | 10( 8.1)         | 105(85.4)            | 4.31± .86 |
| 18. Restrict spicy foods such as contained much flavor or spice.                 | 35(28.4)           | 24(19.5)         | 62(50.4)             | 3.36±1.25 |
| 19. Eat a variety of the foods                                                   | 4( 3.2)            | 11( 8.9)         | 106(86.2)            | 4.21± .77 |
| 20. Lose weight for purposely                                                    | 96(78.1)           | 20(16.3)         | 5( 4.1)              | 1.76± .88 |
| Mean±SD                                                                          |                    |                  |                      | 3.73±.35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건강행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유수유 건강행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3.76점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3.61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2.071, p=.045$ ). 그 외 분만형태, 영아의 월령, 출생순위, 하루 중 모유수유 횟수, 모유수유량 등은 모유수유 건강행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3>.

IV. 논 의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유수유 수행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분만형태는 제왕절개 분만이 22.8%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을 37.5%보

다 낮았으나, WHO권고치인 5-15%보다는 높았다 (MIHWAF, 2008). 아기의 월령은 5, 6, 7개월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석하는 현재까지 모유수유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모유를 수유한 평균기간은 3.03개월(Kim et al., 2000)인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연분만(77.2%) 및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논의하고자 한다. 모유수유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Park 등(200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모유수유를 실행하기 위해 어머니가 해야 할 행위와 질적으로 우수한 모유의 생산분비를 위하여 어머니가 취해야 할 행위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바람직한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 어머니가 해야 할 행위 중 본 연구 결과에서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모유수유시 ‘아기의 몸이 전적으로 엄마와 맞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껴안고 먹인다’가 92.7%이었다. Park 등(2001)의 연구에서도 92.1%이었는데, 이러한 접촉은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Table 3> Difference in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 Items                             | Characteristics    | n   | %    |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 |        |      |
|-----------------------------------|--------------------|-----|------|-------------------------------|--------|------|
|                                   |                    |     |      | Mean(SD)                      | F or t | p    |
| Type of delivery                  | Vaginal delivery   | 95  | 77.2 | 3.73(.36)                     | .200   | .841 |
|                                   | C-section delivery | 28  | 22.8 | 3.71(.33)                     |        |      |
| Baby's age                        | 5months            | 41  | 33.3 | 3.74(.35)                     | .098   | .907 |
|                                   | 6months            | 40  | 32.5 | 3.71(.35)                     |        |      |
|                                   | 7months            | 42  | 34.1 | 3.73(.36)                     |        |      |
| Birth order                       | First              | 82  | 66.7 | 3.73(.37)                     | .061   | .941 |
|                                   | Second             | 36  | 29.3 | 3.71(.32)                     |        |      |
|                                   | Third or over      | 5   | 4.1  | 3.71(.13)                     |        |      |
| Frequency of daily breast feeding | Less than 6 times  | 18  | 14.6 | 3.68(.36)                     | .305   | .874 |
|                                   | 6-7times           | 54  | 43.9 | 3.74(.38)                     |        |      |
|                                   | 8-9times           | 24  | 19.5 | 3.72(.40)                     |        |      |
|                                   | More than 10 times | 27  | 22.0 | 3.74(.23)                     |        |      |
| Breast milk quantity              | Enough             | 114 | 92.6 | 3.73(.35)                     | -.151  | .880 |
|                                   | Insufficient       | 9   | 7.4  | 3.77(.03)                     |        |      |
| Knowledge of breastfeeding        | Enough             | 96  | 78.1 | 3.76(.33)                     | 2.071  | .045 |
|                                   | A little short     | 27  | 21.9 | 3.61(.32)                     |        |      |

촉진시키게 되어 오히려 인공수유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Lee & Gwon, 2006). 반면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아기가 먹다가 남은 젖은 짜낸다'가 8.1%로 매우 낮았다. 수유 후 남은 젖을 충분히 짜지 않을 경우 유방울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위한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교육은 퇴원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모유수유 교육에서 강조하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율이 낮은 것은 모유를 보유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은 젖을 짜지 않아 발생한 유방울혈의 경험이나 빈도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신생아실 간호사 또는 모유수유 전문간호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Park 등(2001)의 연구 결과보다 실천 정도가 낮은 문항도 있었는데, '젖을 먹이기 전에 유방마사지를 해 준다'가 42.3%, '한번 젖을 먹일 때에도 가능하면 양쪽 유방을 모두 먹인다'가 54.5%이었다. 반면 Park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각각 69.2%, 68.3%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Park 등(2001)의 연구에서 모자보건시범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의 모유수유 건강행위가 모자보건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보건소보다 더 높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즉, 본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받지 않아 Park 등(2001)의 연구 결과보다 실천정도가 낮다고 추측되며, 적극적인 모유수유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질적으로 우수한 모유의 생산분비를 위하여 '흡연'을 하지 않는 산모가 97.6%, '음주'를 하지 않는 산모가 93.5%, '의사나 약사의 허락없이 복용'하지 않는 산모가 95.1%였으며, Park 등(2001)의 연구에서도 각각 94.7%, 86.6%, 95.2%이

었다. 반면 '물을 많이 마신다(85.4%)',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86.2%)', '일부러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다(78.1%)'는 '실천한다'가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가 '실천한다'가 52.8%, '양념이나 조미료가 많이 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가 50.4%로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특히 '양념이나 조미료가 많이 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는 '실천하지 않는다'가 본 연구에서는 28.4%, Park 등(2001)의 연구에서도 27.9%이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대부분의 어머니가 양념이나 조미료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유는 아기의 대장속에서 가수분해되어 호산성 유산균의 생성을 촉진하여 장내에서 대장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여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Jensen, 1999). 그러므로 UNICEF(2007)에서 출산 후 1시간 이내의 초유를 권장하는 것이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홍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는 커피나 조미료 등은 이러한 호산성 유산균이 만드는 바람직한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Jensen, 1999) 모유수유 동안 삼갈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는 의사가 추천을 한 것도 있지만, 접수에서 일기 적기, 검사 등 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참가 신청부터 가족의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사업에 참여한 관심있는 부모가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 전달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건강행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건강행위가 평균 3.76점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즉 지식이 많을수록 모유수유 건강행위 실천 정도가 높음을 시사하며,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실천 정도에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Gulick(1982)은 모유수유를 1개월 내 중단한 초산모와 1개월 이상 지속한 초산모를 비교한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성공적이었다고 하였으며, Chio (2002)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군에서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모유수유건강행위가 아기의 월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축적되어 정확한 모유수유 건강행위 점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습득되어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Sung, 2000). 그러므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간호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모유수유 간호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분만 후 산후관리, 아기에 대한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모유수유모에게 추가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임신기 동안에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둘째로 분만 후 입원기간 동안 모유수유방법 시범, 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모유수유에 대한 격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퇴원 후에도 모유수유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 간호서비스의 제공,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유수유 선발대회에 출전한 모유수유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확대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유수유모의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모유수유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석한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연 분만이 77.2%로 높고, 제왕절개 분만은 22.8%으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을 37.5%보다 낮았다. 모유수유 지속 정도는 6. 7. 8개월까지 지속하여 우리나라 평균모유기간인 3.03개월보다 길어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바람직한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 모유수유시 ‘아기의 몸이 전적으로 엄마와 맞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껴안고 먹인다(92.7%)’와, ‘젖 먹이기 전에 항상 손과 젖꼭지를 씻는다(80.5)’가 가장 실천 정도가 높았다. 반면에 ‘양념이나 조미료가 많이 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는 28.4%만 실천하였다. 이러한 모유수유모의 실천정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건강행위가 평균 3.76점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다( $t=2.071, p=0.045$ ).

이상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병원에서 퇴원시 모유수유 건강행위에 대한 올바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재점검하는 과정을 모유수유 교육에서 강화하기를 제언한다.
2. 정확한 모유수유 건강행위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발생하였던 문제점에 대한 조사 및 극복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하기를 권장한다.

## Reference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8). *Caring for your baby and young child*. Washington :

- 
- Bantam Books.
- Byun, S. J., Han, K. J., & Lee, J. H. (1994). A study on type of feeding and attitude of mother to breast feeding. *Korean J Maternal Child Health Nurs*, 4(1), 52-67.
- Chen, H. (1995). *The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on feed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 Chezem, J., Freiesen, C., & Boettcher, L. (2003). Breastfeeding knowledge, breastfeeding confidence, and infant feeding plans: effects on the actual feeding practices. *JOGNN*, 32(1), 4047.
- Choi, S. Y.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breastfeeding and practice of feeding pattern.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116-123.
- Gulick, E. (1982). Information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feeding. *Am J Matern Child Nurs*, 7, 370-375.
- Jensen, B. (1999). *Dr. Jensen's guide to better bowel care*. Kugil media : Seoul.
- Jeong, G. H. (1997).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promoting the breastfeeding practice i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N. M. (1999). Primiparous coupl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breastfeed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5(3), 379-388.
- Kim, H. S., Seo, J. W., Kim, Y. J., Lee, K. H., Kim, J. Y., Ko, J. S., Bae, S. H., & Park, H. S. (2003). A follow-up survey of mothers' antenatal breast-feeding plans. *J Korean Pediatr Soc*, 46(7), 635-641.
- Kim, K. N., Hyun, T. S., & Kang, N. M. (2002). A survey on the feeding practices of women for development of a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breastfeeding knowledge and breastfeeding rates. *Korean J Community Nutri*, 7(3), 345-353.
- Kim, S. G. (2003). *2003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April 10, 2008,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b site : <http://kihasa.re.kr/html/jsp/ebook/2003>.
- Kim, S. G., Cho, A. J., Lee, S. S., Kim, Y. G., & Song, I. J. (2000). *2000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Retrieved April 10, 2008,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b site : <http://kihasa.re.kr/html/jsp/ebook/2000>.
- Kim, S. G., Cho, A. J., Kim, Y. G., Do, S. R., & Lee, G. O. (2006). *The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Retrieved April 10, 2008,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b site : <http://kihasa.re.kr/html/jsp/ebook/2006>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The statistics of Breatfeeding rate. Retrieved July 13, 2008, from <http://www.nso.go.kr>.
- Kwon, I. S., Choi, S. Y., Kang, Y.S. & Yang, Y. O.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Empowerment and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of breastfeeding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4(1), 20-27.
- Lee, E. S., & Suh, Y. S. (1996). Effects of Breastfeeding Education Prgoram on the



- Promotion of Mothers's Feeding Complia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1), 59-75.
- Lee, S. O. (2003). A study about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oblem of breastfeeding in early postpartum period and breastfeeding practi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9(2), 179-189.
- Lee, S. O., Chung, E. S., Ahn, S. H., Mun, G. N., & Park, N. 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4), 368-375.
- Lee, S. Y., & Kwon, I.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 Women Health Nur*, 12(3), 231-239.
- MIHWAF (2008).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Retrieved July 4, 2008 from <http://www.mw.go.kr/user.tdf>
- Moon, G. N., Jung, J. H., Lee, S. O., Cho, G. S., Kim, Y. J., Chung, E. S., & Bai, J. Y. (1998). Breastfeed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breastfeeding problem during the week of postpartum. *Korean J Women Health Nur*, 4(3), 416-428.
- Park, E. O., Lee, K. S., Jang, I. S., & June, K. G. (2001). Breast-feeding &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 among first-time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3), 382-392.
- Sung, M. H. (2000). Nurse's knowledge to breast-feeding and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feed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6(2), 258-268.
- UNICEF (2007). The 1st Hour - Save one million Babies! Retrieved July 13, 2008, from [www.unicef.or.kr/bf/work/index.html](http://www.unicef.or.kr/bf/work/index.html)
- Yeo, J. H., & Hong, S. C. (2003). The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rate on breast feeding. *Korean J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7(2), 155-165.

---

---

## ABSTRACT

Key Words : Breastfeeding, Mother, Health behavior

# A Study on Breastfeeding and Health Behavior of Breastfeeding Mothers

Choi, So Young\* · Yang, Young Ok\*\* · Kwon, In Soo\*\*\* · Kang, Young Sil\*\*\*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level of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feeding mothers related to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s. **Method:** 123 breastfeeding mothers whose infants are between 5-7 months of ag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during a Breastfeeding Infant Contest held in September 2007 in Changwon-si, Gyeongsangnam-do. Health behaviors related to breastfeeding were measured in Likert scale 5 including 20 questions developed by Park et al.,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using SPSS program. **Result:** The performance level on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s scored  $3.73 \pm .35$  on average (5.0 in full score). The score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only in the knowledge of breastfeeding between groups. The score of 'enough' knowledge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a little short' knowledge group ( $t=2.071$ ,  $p=0.045$ ). **Conclusion:** The performance level on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s was related to the knowledge of breastfeeding in breastfeeding mot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education on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s for mothers of newborns in the hospital and to have a reevaluation process on their performance at the time of revisiting.

---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